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5

임철우의 『봄날』에 나타난 '환(幻)체험'과 주체의 존재 방식*

김 세 나**

요약

이 연구는 임철우의 『봄날』에 나타난 환(幻) 체험의 특징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주체가 추동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광주 항쟁에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은 단순히 트라우마적 요인을 살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추동되는 방식을 살필 수 있게 한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입장의 존재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이는 환(幻)체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적 공포 현장에서 빚어진 환시(幻視), 환청(幻聽)으로 재현된다.

임철우의 『봄날』의 서사 구조는 가해자/희생자 입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한 가족 안에서 계엄군과 시민군이 존재하게 되는 비극적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같은 '광주'의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행동을 재현한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립으로 확장되며 이를 '말'과 '목소리'로 구분되는 세계인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의미를 담지한 대상으로서 말-내용은 주체의 신념을 확인하게 하는 요인이다. 계엄군 혹은 가해자로 명명할 수 있는 지위의 인물들은 국가가 행하는 말 즉 지휘관의 말-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시민군을 추동하는 배경에는 '목소리'가 현존한다. 시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광주의 거리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여자의 목소리는 말 내용을 바탕으로 뜻을 전달하는 의미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지칭적 주장의 성격을 띠며 내용이 곧 형식이 되는 효과를 자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574)

** 군산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초빙교수

낸다. 그것은 “처절한 흐느낌으로, 절규로, 애원”의 음성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그녀의 말-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지닌 호소력에 압도당하게 된다.

주체가 현실 판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광주에서의 10일의 배후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자행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신군부의 ‘토대’ 세우기를 위해 자행된 사건 과정에서 광주의 시공간은 역사상 유래 없는 환체험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각자의 ‘대의’를 향한 전투과정은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 공간을 직접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내고, 시민군 역시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임철우의 『봄날』은 환체험에 압도당한 주체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환(幻)체험, 말, 목소리, 응시, 대의(大義), 자유, 폭력

목차

1. 들어가며
2. 소문의 ‘말-내용’과 왜곡된 현실인식
3. 충동의 목소리와 환영적 응시의 주체
4. 불꽃, 자유를 향한 보편성의 부상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한국문학에서 1980년대는 모순의 시대라 명명된다. 고도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발전적 상황 속에서 “폭력과 야만이 일상을 잠식하고 불온과 금기로 민중의 숨통을 짓누르던”[1] 시대적 분위기가 공존했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의 민주혁명이 태동한 이래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광주의 그날을 다룬 작품들은 다양한 형상화로 재현되었다. 일률적이던 희생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역할에 섰던 사람들의 입

1) 신수정,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황석영 한국 명단편101』 6, 문학동네, 2015, 399면.

장이 공존하게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억화의 양상이 축적된 주체의 서사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5·18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소설사에서 '광주 소설', '오월 문학', '5·18 소설'이라 불리는 특정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관련 연구 또한 다양한 시각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철우의 『봄날』은 유의미한 지점을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80년의 5월, 광주를 극사실적으로 서사화한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나타낸다. 광주를 다룬 윤정모의 「밤길」(1985),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와 같은 초기작들은 당시의 엄혹했던 시대의 통제와 억압 때문에 우의성을 지니면서 단편적·체험적인 삽화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2] 객관적·시간적 거리 확보가 아직 충분치 못한 이유로 파편화된 세계의 이미지를 주조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초기 광주항쟁의 소설화는 폭로와 고발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는 내재적 배경을 지니는 바 이는 계엄령 아래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객관적 증언 수집과 실록으로서 색인하려는 의무감"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이해된다.[3] 이와 같은 사회적 엄혹함의 자장을 배경으로 이해해야만 후에 서사화 된 『봄날』의 문학적·사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봄날』의 주된 시각은 기억의 소설화와 서사적 대립구도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작가적 소명의식으로서 『봄날』의 발로를 찾고, 텍스트의 세밀한 재현을 통해 현재적 역사성과 정치성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광주의 일들을 기록한 텍스트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거짓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통로[4]로서 의미화

2) 강진호, 「5·18과 현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6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3면.

3) 채희윤, 「초기 광주항쟁 소설 「깃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371면.

4) 김영삼, 「재현 너머의 5·18, '타자-되기'의 글쓰기-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한국

가 이뤄지고 있다. 임철우 스스로도 밝힌 바 있듯, 시민군 혹은 피해자의 편에서만 서서 서사화를 진행하지 않고 다중시점[5]을 통해 시점교차를 시도한 것은 총체적으로 당시의 광주를 담아내기 위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봄날』은 사료와 자료로서 정형화된 다큐멘터리 방식을 혼합하는 서사적 특성을 갖추면서도 역사적 기록의 경향을 뛰어넘는 효과를 형성한다. 실제 사건을 증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가적 숙명의 증거로서 텍스트의 의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소설 구조를 통해 재현된 사건과 체험은 작가의 정신 구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억은 모든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는 보관소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일반화되는 심상[6]이며 문학은 이를 재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군인을 함께 교차해가며 "씨줄과 날줄로 옷감을 짜내듯이"[7] 교직하여 창작한 작가적 태도를 두고서도 역사적 기록의 차원을 벗어나는 창조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5·18이라는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는 객관적인 증언을 넘어, 작가의 상상력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의미의 복합성은 역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닌 "그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는 개별자들에 의해 추동"[8]되는 것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10일간의 기록의 재현적 의미라는 시각을 벗어나 처음과 끝이 일관된 연결성을 갖게 하는 일종의 질서화 작업[9]으로서의 서사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특

문학이론과 비평』 제7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117면.

5) 손미란, 「5월 18일까지의 시간과 공간, '봄날'의 정치학-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42집, 한국어문학회, 2018, 341면.

6) 강진호, 「5·18과 현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6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9면.

7) 김정한·임철우 대담, 「역사의 비극에 맞서는 문학의 소명」, 『실천문학』 통권112호, 실천문학사, 2013, 81면.

8) 김정숙, 「5·18 민중항쟁과 기억의 서사화-8·90년대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1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7, 180면.

9) 전흥남,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기억의 방식-문순태의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 2015, 75면.

히 임철우는 총체적이고도 입체적인 서사화를 목표로 하여 각양각층의 인물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시민들과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입장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시점의 교차를 활용하여 대립구도를 재현하게 된다.

대립적 구도에 주목한 연구들은 시점의 교차에서 빚어지는 힘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명중은 『봄날』의 대립적 세계가 '두 무리들의 운동과 그것들의 마주침'이 빚어내는 정동의 동역학임을 밝히고 있다. 각기의 입장들이 공동의 시간 속에서 작동한 메커니즘이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규정하게 되면, 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뿐 아니라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손쉬운 선택이 된다. 그리하여 광주의 시간에서 벌어진 두 덩어리의 폭발적 현상에 대해 사회적 잠재태로서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둘이 "하나의 몸체"[10]에서 구현된 구도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충동한 힘의 속성과 그 기원을 살필 수 있다는 논지이다. 차원현 역시 이를 광주의 폭발적 다이내미즘의 장으로 명명하며 힘의 충돌과 몸짓[11]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립적 힘의 충돌은 결과적으로 시민군의 입장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봄날』은 죽음의 진혼곡이자 광주를 위한 작가의 기념비적 시도[12]로서 광주를 죽음을 통해 지켜낸 해방공동체로 파악[13]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어떤 각본에 따라 광주항쟁이 발발했다는 작가의 사회현실적 의식의 결과

10)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Vol 13 No.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136-164면 참조.

11)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454-456면 참조.

12) 정명중은 진압기계로 재현된 계엄군의 서사적 흐름을 명쾌하고 입체적인 반면, 저항하는 군중이자 시민군을 재현하는 데에 있어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하며 서정적인 형태인 '불씨'로 정의내린 균형의 이탈을 지적하기도 한다.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Vol 13 No.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158면 참조.

13) 이 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1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86-87면.

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글은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대립적 힘의 충돌이 주요한 서사적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수렴하고, 작가의 소설 미학적 차원과 역사적 사건이 접합되는 지점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문학 연구란 사회 속에 숨겨진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환영으로서 산문적 현실을 분석하고, 사회 심층에서 판독된 무의식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이다.[14] 작가가 드러낸 미학적 장치이자 실제 역사 현장에서의 공동체적 연대 경험이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로서 환체험의 의의를 살피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광주민주항쟁은 개인의 사적 트라우마를 넘어 한 국가의 공적 트라우마로 자리하게 된 사건이다. '환'체험은 5·18 항쟁의 시간 동안 계엄군, 시민군으로 이분된 계층이 겪는 주체적 행위로서의 추동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각기 다른 환영적 세계는 환각, 환청, 비실재적 경험으로 자각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작인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심상지리를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선택과 행동을 도출하게 된 근원적 문제에 도달하고자 한다.[15]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이항대립 체계로 구분된 서사적 담화 체계에 주목하여 군인들에게 '주문'으로 작용하는 명령문과

14) 문학은 그 독창성이 입증된 이해 가능성 양태이다. 텍스트 자체의 의미망은 사회 심층의 무의식적인 양상을 표면의 진리로서 말하고 이와 같은 징후를 독해하는 모델로서 문학은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44-45면 참조.

15) 국가 폭력과 주체의 환상적 체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로 송병삼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4·19의 체험이 196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본래적 체험으로 자리하게 된 바, 전근대적 세계에서 근대적 합리성의 세계로의 변환 가능성을 다룬다. 공포의 원체험으로 작용하는 '거리의 소리들'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지각 회로'의 의미를 지닌다. 시대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실재적인 느낌을 다룬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논의로의 확장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송병삼, 「4·19소설의 감각체험과 재현방식으로서의 환상」, 『인문학연구』 49권4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33-137면.

시민들이 휩싸인 소문의 성격을 다룬다. 이어 행동의 실천으로 이행하게끔 추동하는 '목소리',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여자의 목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충동의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2. 소문의 '말-내용'과 왜곡된 현실인식

『봄날』은 두 대립적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적 과정을 서사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광주에서의 10일 동안 시민들이 외부와의 단절과 소문의 위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체성을 쌓아갔다면, 마찬가지로 이곳에 당도한 계엄군들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어나가게 된다. 계엄군의 대표적 인물인 명치는 삼 형제 중 둘째로 군의 명령에 따라 이곳, 고향 광주에 당도한다. 같은 처지의 강 상병, 오 하사, 유 이병, 추 상사 역시 군에 오기 전에는 대학생이었거나 월남 참전의 이력이 있는 등 각기 다른 개별적 존재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로 묶는 '주문'이 있으니 바로 지휘관의 반복적인 말-내용이다. 이는 계엄군들을 하나로 묶고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여 강박에 사로잡히는 효과를 이끌어낸다.

> 지난 몇 달 동안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폭동 진압 훈련 과정 내내 지휘관들로부터 넌더리가 나도록 들었던 진압 수칙들.
>
> **공격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라.**
>
> **타격시에는 두부를 제외한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하라.**
>
>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체를 집중 공격하라.**
>
> **다중에게 최대한 공포심을 유발시켜라.**
>
> **공포심이야말로 폭동 집단을 와해시키는 최상의 전술이다……**
>
> 지휘관들은 지난 부마 사태 때 투입된 또 다른 공수특전부태의 작전에

서 그 같은 전술이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원동력이었음을 누누이 자랑하고 강조했었다. 병사들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 때문에 광주에 투입된 첫 순간부터 병사들은 최대한 무자비하게 군중을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16)]

이때 지휘관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말은 “죽은 전우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건 엄연한 전투다.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생과 사의 게임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너희들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이다”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안기며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하여 몰아붙인다. 반복된 훈련과 누적된 피로감으로 당장 이 현실에서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은 시민들을 향한 분노로 전이되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없애야 하는 적으로 인지하게 만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군인들 역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계엄군의 분열적 정신 상태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휘관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일개의 개인은 존재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군의 규율권력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군인을 관리하는 지휘관들은 모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이들은 다만 두 눈을 가릴 것뿐인데도 인물의 특징과 감정, 표정까지도 놀랍도록 깡그리 지워버리는 이상한 마력을 뿜어낸다. 마치 “해골이나 무슨 불길하고 흉측한 가면”처럼 보이기도 하여 마주 대하고 선 사람에게 “까닭 모를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지휘관에게 하달받은 명령은 완벽한 복종을 유발하는 효과로, 개인을 철저히 지우는 “한덩어리”(1권, 125면)를 이끌어내는 힘을 파괴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맨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무석은 언뜻 그것이 거대한 물체의 덩어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곧게 뻗어나간 사차선 도로의 한 쪽 끝에서부터

16) 임철우, 『봄날』 4권, 문학과지성사, 1998, 41면.(이하 인용 시 권, 페이지만 표기함).

반대쪽 끝까지의 면적을 빽빽하게 채운 채 미동도 없이 정지해 있었다. 온통 검푸른 빛을 띤 그 낯선 덩어리는 흡사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배치되어진 정체불명의 쇠붙이처럼 보였다. (중략)…그 모든 풍경들 한가운데에 정지해 있는 그 정체불명의 덩어리는 어마어마한 흡인력으로 주변의 사물과 빛깔들을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있는 듯한 기괴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중략) 마침내 최조의 움직임이 있었다. 수백 개의 관절로 이어진 한 마리 거대한 파충류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고도 치밀한 속도로 그것이 꿈틀꿈틀 기어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무석은 그것이 살아 있는 인간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밑줄, 인용자. 1권, 305-307면)

공수부대원들의 형상은 질서정연한 태도를 넘어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될 정도로 절도 있는 위용을 재현한다.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던 시가지의 풍경과 주변의 거리 위에 비현실적으로 위치한 한 덩어리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파충류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목표 대상을 포착하고 재빠르게 포획하는 파충류의 움직임처럼 시민들을 향해 지휘봉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무석은 광기어린 폭력성을 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체적 움직임은 광주에 당도하기 전부터 계엄군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규율의 신체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의 능력과 성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단계들을 계엄군들은 무수히 거쳐 오면서 기계적 신체를 형성하게 된다.

돌연 엄청난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운동장 중앙에서 전체 여단 병력이 정연하게 대열을 갖춘 채 이제 막 체력 단련을 시작하고 있는 참이다. 상체를 완전히 벗어제친 채 수백 명의 병사들이 기계처럼 똑같은 몸짓으로 절도 있게 움직인다.

"아으으-엇. 아아아-앗."

일제히 터뜨리는 위압적인 함성이 드넓은 교정을 쩌렁쩌렁 뒤흔든다.

> 그것은 날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어김없이 실시하는 체력 단련 훈련의 하나였다. 상의를 벗는 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체력단련은 주로 피티 체조와 특전 무술로 되어 있었다. 특전무술이란 일종의 태권도와 합기도 동작을 종합시킨 무술인데, 그것 외에도 병사들로서는 누구나 일정 기간 내에 초단 이상의 태권도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신병들은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을 치러내야만 했다.(2권, 43-44면)

군인은 상부에서 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수한 반복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곳은 단 한 사람의 낙오나 자발적 포기도 허용치 않는다. 즉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의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규율[17]의 세계 속에 있다. 결국 기계적 신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유의지로서 현실 판단하기 어려운 극한에 내몰린다. 이에 더하여 장거리 이동과 긴장의 연속으로 절대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마치 머릿속은 풍선처럼 텅 빈 느낌이며 전신의 모든 관절과 근육은 허깨비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비현실적 감각을 느낀다. 즉 "몸도 정신도 따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4권, 47면) 속에서 반복적 규율의 말에 제 자신의 정신을 합치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객관적 현실 판단을 선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봄날』은 모든 사람들이 '소문'에 의지하게 되는 구조를 형상화한다. 계엄군이건 시민군이건 구분없이 광주에서의 10일 동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소문을 통해서만 실체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음성존재[18]로부터 현실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과 같다. 목소리의 재현이

17) 군대에서의 규율(discipline)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장치 속으로 들어간다.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216-217면 참조.

18) 미셸 시옹에 따르면 아쿠스마티크(acousmatique)는 음성존재로 번역된다. 단지 들리기만 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음원 지점은 보이지 않는 환청화는 공포로 이어지게 된다. 계엄군은 자신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흥분 상태를 목도하며 이를 체감하고 있다.

> 계엄군 지휘관들은 사태의 책임이 오히려 시민 쪽에 있다고 몰아붙이려 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
>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 원인은, 5·17조치 이후 서울에서의 반정부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김대중 추종 세력을 포함한, 서울의 호남 출신 대학생들과 깡패들이 합세, 광주로 잠입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이 지역 불순분자들과 극렬분자, 깡패들이 동조하여, 반정부적인 지역 민심을 선동함으로써 대규모 시민 시위를 유도해 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전라도 사람 씨를 말려 죽인다" 따위 악의적인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구두닦이·넝마주이·양아치·공원·전과자·무직자 등 불만계층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날뛰게 되고, 이에 선동된 시민들까지 휩쓸려들어 사태가 확대된 것이다. (4권, 321-322면)

지휘관들의 말에 의하면 광주사태의 발단 원인은 반정부 활동이 서울에서 불가능해지자 김대중 추종 세력과 호남 출신 대학생들, 깡패들이 합세하여 광주로 잠입하여 빚어진 사태로 규정된다. "경상도 군인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유언비어로 인해 평소 사회에 불만계층이 가세하게 되고 이에 시민들까지 선동되었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사태의 근원인 소문의 진상에 지역감정이 덧씌워지고, '몫 없는 자들' 까지 엮이면서 가상의 실체화가 이뤄진다. 그리하여 계엄군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자리를

는 소리를 지칭하며 목소리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관념이다. 말하는 사람을 봄으로써 전달 내용을 곡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휘장 뒤에서 말하는 스승의 목소리를 듣게 했던 피타고라스학파에 부여된 이름이다. 미셸 시옹, 박선주 옮김, 『영화의 목소리』, 동문선, 2005, 37-42면 참조.

배당받지 못한 자들로 광주 시민 전체를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 무자비한 폭력의 행사라는 합리화에 이른다. 그러나 몫 없는 자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들은 평범한 이웃이자 광주의 시민들 자체의 표상과 같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의 이웃들, 철물점 직원, 목공소 사장, 용달차 기사, 제과공장 여공, 술집의 여급 등은 어느 곳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물론 계엄군에게만 소문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 역시 "공수부대의 손에 사망자가 생겼다", "진압봉 정도가 아니라 대검으로 닥치는 대로 행인들을 쑤셔댄다"는 말들을 접하며 공포감에 휩싸인다. 소문의 시작은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내용에서 발단된다. 점차 여러 사람들이 목도한 현실에 제각각의 공포심이 덧대어지고 기정사실화 단계에 이르며 형성되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명기는 다른 손님과의 합석을 통해 진압대로부터 몸을 피한다. 이때 기사와 손님은 자신들이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소문을 전한다. "이번에 내려온 공수부대들은 전부 경사도 출신만 뽑아"(1권, 356면)가지고 왔다는 손님의 말에 기사 역시 직접 공수부대원과 대화한 경험을 전해준다. 말인즉슨 공수부대원의 한 사람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말투에서 서울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부대의 소재가 전라북도 금마에 위치했음을 확인한 사실 또한 밝히며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내 소문은 "경상도 군인 부댄디,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릴라고 내려왔다아"(1권, 366면)는 주민들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번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소문은 현실에 속하면서도 완전히 현실 영역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전지전능하며, 유령 같은 목소리[19]로서

19) 환성화란 현실 내부의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 부착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중간 영역 속을 자유롭게 떠돌며, 보이지 않는 주인의 목소리로서 출현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때 시각적 차원과 청각적 차원의 긴장이 유발된다. 목소리 자체가 시각적인 것의 부분 대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봄날』에서 소문의 청각적 차원은 시민들에게 시각적 차원의 부분 대상을

의 차원을 획득하고 있다.

> 장갑차를 선두로 차량 제대가 조선대 교정을 빠져나오는 도중, 폭도들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아 정훈장교 한 명과 앰뷸런스 운전병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칠팔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 앰뷸런스에 탔던 의무장교 하나는 머리에 총을 맞아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말도 들렸다. 또 대원 하나가 차에서 떨어져 달아나다가 붙잡히고 말았는데, 폭도들이 그 대원을 무수히 칼로 난자해서 죽여버린 다음, 하루종일 온 시내로 신체를 질질 끌고 다녔노라는 믿기 어려운 소문도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대원들은 극도로 흥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전날, 수색중에 교전이 붙어 부상자가 여럿 생겨난 터였다.(5권, 156-157면)

병원 직원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상자들을 대면하면서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 인식된 청각적 차원이 실제 대면하는 시각적 차원과 연동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시민들은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소문은 계엄군과 시민들 양쪽 모두에게 작동되면서 스스로의 파괴력을 행사한다. 처음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은 사람들의 경험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각자 갖고 있던 제각기의 공포심이 덧대어져서 원형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단계로 확장된다.

『봄날』에서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명기는 소문의 진상과 대면하는 경험을 역설적으로 광주를 떠나면서 체감하게 된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이 펼쳐진 마지막 날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명기와 순임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겨우 건물을 빠져나온다. 군에서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주변의 걱정에 신안의 작은 섬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 배에 올라탄 명

찾도록 작동하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183-1184면 참조.

기는 광주 자체가 흉흉한 소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사상자들의 숫자, 동원된 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정리하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배 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들로써 실체가 아닌 그 주변을 확장하고 있다.

> 명기는 불현 듯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들에겐 다만 그것은 멀리 떨어진 한 불행한 도시의 이야기이거나 미처 확인되지 못한 흉흉한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명기에게 그것은 너무도 생생한 현실이었고, 영원히 치유받지 못할 상처였다. 지금 이 배 안에서 그 악몽의 시간을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악몽의 기억과 함께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에, 명기는 숨이 막히도록 외로움을 느꼈다.(5권, 433-434면)

이를 통해 『봄날』은 광주에서의 실체적 경험이 생생한 역사이면서도 국가로부터 버려진 개인의 치유 받지 못할 상처임을 미학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정되는 일이 가장 처참한 심정을 낳는 것과 같이 광주 바깥의 사람들에게 광주는 하나의 소문에 불과할 뿐임을 알고 명기는 좌절한다. 계엄군과 시민군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과정에서 소문에 휩싸였듯 바깥에서도 광주에서 벌어진 실제적 사건들에 대해 무수한 소문이 형성되면서 처벌받은 도시[20]로서 하나의 광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처벌의 주된 목적은 광주를 하나의 본보기로서 낙인찍고, 그 안의 무구한 사람들을 억제하여 광주 바깥에도 공포효과를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 처벌은 개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서 집행은 '하나의 광경'이다. 처벌은 외양(appearance)을 통해서 재현된다. 처벌의 주된 목적은 무구한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는 외양에 의해 성취된다. 처벌의 효과와 실현에 대한 논의는 미란 보조비치, 이성민 옮김, 『암흑지점: 초기 근대 철학에서의 응시와 신체』, 도서출판b, 2004, 161-165면 참조.

3. 충동의 목소리와 환영적 응시의 주체

시민들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집 밖에서는 현실 감각을 잃게 하는 총소리가 들리고, 대낮의 하늘에서는 헬기가 꽃을 흩날리듯 전단지를 뿌려댄다. 지축을 흔드는 탱크가 거리 곳곳에 다니고 있으며,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화는 먹통이고 유일하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라디오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군이 장악하여 시민들은 철저한 고립과 공포의 시공간에 놓여 있다.

> "폭도들은 투항하라. 도청과 광주공원은 완전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생명은 보장한다……"
>
> 새벽 네시의 광주 KBS 방송은 그렇게 연신 반복했다. 경고 방송 간간이 경쾌한 행진곡이 쿵작쿵작 흘러나왔다. 「콰이강의 다리」도 흐르고 「돌아온 병사」도 흘러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깥에선 다다다다다, 투투타타타, 벼락 같은 총성이 천지를 뒤흔드는데, 라디오에선 쿵작쿵작 쿵작작, 신나고 흥겨운 행진곡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시민들은 분노와 절망, 슬픔과 굴욕감에 끝없이 치를 떨었다.(5권, 421-422면)

유일하게 의지했던 라디오 방송마저 군에 점령되고 시민들은 무력하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있다. 라디오의 소리는 반복적으로 사태의 소요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시민들이 다른 희망을 꿈꿀 수 없도록 유도한다. 밖에서는 반복되는 총소리가 빗발치는 현실임에도 비현실적으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광주 밖에서는 박찬희 선수의 타이틀 유지 매치전 권투 시합을 중계하기도 하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음을 알리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철처한 고립 속에서 시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뜨거운 공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유대감[21]을 형성하게 된다. 즉 시민들은 각자의 '불꽃'을 피우는 과정을 겪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집은 시민들을 향한 목소리를 통해 추동력을 얻고 있다. 레나타 살레클에 따르면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사이렌'은 작품의 내용 자체이자, 창작물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기능한다. 노래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노래를 하는 그 자체의 자기-지칭적 주장이 내용이자 형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오디세이아』의 서사적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만 하는 내러티브 안에 있는 지점[22]으로서 바로 사이렌의 노래가 자리한다. 이는 상징화의 구도 안에 포섭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대상의 역할로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봄날』의 서사에서 기폭제로의 장치이자, 실존인물이기도 한 '전옥주'의 역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전옥주가 가두시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전하는 말은 시민들에게 "힘을 내자, 싸우자, 원수를 갚자" 등과 같이 시민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명확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목소리에 동요하고 있다. 때로는 흐느끼면서 격정에 이르기도 하고, 카랑카랑한 힘을 뿜어내어 선뜻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21) 서영채는 이를 '광주 정서'라 명명한 바 있다. 심리적 양가성이 서사의 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분노와 좌절, 절망과 배신감이 한 축을 이룬다면 타인의 외상에 대한 뜨거운 공감,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의 유대감 등이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상호 작용을 광주 정서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영채, 「『봄날』에 이르는 길-임철우론」,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350면.

22) 레나타 살레클은 현재의 사이렌의 기원으로서 고전 신화 속 사이렌 자매가 선원들을 매혹적인 노래로 유인한 사례를 대입한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 자체가 사이렌의 노래의 체현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텍스트 안에 있는 텅 빈 발화불가능한 지점으로서 치명적 쾌락에 대한 암시이자 텍스트(시)에 숭고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레나타 살레클, 이성민 옮김,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b, 2003, 99-103면 참조.

게 고마움, 부끄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부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의 아들딸,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읍시다아……"
>
> 언제 나타났는지, 시위 군중의 후미인 한일은행 네거리에서 가두방송이 울려퍼지기 시작한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회색 봉고차 한 대가 네거리 한가운데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카랑카랑하면서도 애절하게 울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반쯤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여자는 거의 흐느끼고 있었다.
>
> 그녀의 애절한 절규에 명기는 가슴이 섬뜩해왔다. 한순간 명기는 자신이 바보처럼 눈물을 질금질금 쏟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돌멩이를 찾으려고 아스팔트 바닥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3권, 186면)

광주 시내를 도는 봉고차 위에서 그녀는 확성기로 시민들을 향해 호소를 반복한다. 정연한 질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한다. 시민들은 그녀가 전하는 말 내용보다도 이를 전달하는 "울음과 격정, 강렬하고도 애절한" 음성에 이끌리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이 여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가 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반쯤 목이 잠긴 젊은 여자의 음성"은 시민들의 마음에 불꽃을 피우기 위한 점화작용을 일으킨다.

> 그 짙은 어둠을 뚫고 끊임없이 울려오는 확성기 소리. (중략) 여학생은 절규하고 있었다. 잔뜩 갈라진 애절한 목소리가 피를 토해내듯 시내 곳곳을 메아리치고 있었다. 금남로에서 유동으로, 대인동에서 동명동으로, 산수동에서 계림동으로, 양동에서 또다시 양림동으로……점점 압축해오는 포위망 속에서도 여학생은 쉬지 않고 이동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5권, 394면)

사람들은 골목 곳곳을 누비며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만 누구도 쉽게 밖에 나오지 못한다. 이미 광주 시내 전체가 계엄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군인들이 은폐하여 도청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 삼엄한 상황임을 알기 때문이다. 전옥주가 잡혀 들어간 이후에도 들리는 목소리는 이전의 그녀가 행했던 것처럼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곳곳을 누비며 호소를 전한다. 이처럼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결코 망각될 수도 없으며, 치명적인 반복강박의 폐쇄회로[23]의 구조를 보여주는 목소리는 충동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체적 경험의 추동체로서 목소리의 지위가 자리한다면 현실을 뒤흔드는 환각적 체험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구의 세 아들 가운데 무석과 명치는 각기 다른 역할로 광주에 자리하면서 어머니의 환영을 마주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쳐서 집을 나간 어머니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환각적으로 출현하여 혼란을 일으킨다.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어머니를 광주에서 봤다는 풍문으로 접한 무석은 “어쩌다 길에서 실성기가 있어 뵈는 여인이나 어정거리는 거지 여자”(1권, 162면)를 마주칠 때마다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녀의 비실체성은 현실을 뒤흔드는 얼룩으로 기능한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장에서 불쑥 튀어나오거나 덧대어져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고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똑바른 응시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하고 일종의 사시(斜視)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상과의 소통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얼룩[24]인 것이다.

무석뿐 아니라 동생인 명치 역시 어머니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내쳐진 어머니가 학교 앞에 찾아왔을 때 거세게 저항하며 내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오래전 얼굴이 생각지 못한 상황에 상기되면서 충격은 배

23) 레나타 살레클, 이성민 옮김,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b, 2003, 105면.
24)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옮김,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1997, 33면 참조.

가되는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 하얗게 질린 낯빛으로 와들와들 떨고 있는 그녀들 중 하나와 명치의 눈이 마주쳤다.
>
> "아아아, 엄마아. 엄마아."
>
> 계집아이가 와락 몸을 웅크리며 가늘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째서일까. 공포에 질린 계집아이의 눈망울 위로 명치는 얼핏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다.
>
> '어머니.'
>
> 어린 시절, 고향 낙일도의 선창가 창고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던, 바로 어머니 귀단의 모습이었다. 명치는 문짝을 힘껏 걷어차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갔다.(2권, 154-155면)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건물 안을 뒤지던 명치는 책상 밑에 숨어있던 두 여성과 마주한다. 그들 가운데 한명과 눈이 마주치자 망각된 기억 속의 어머니가 떠오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과 중첩되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현실의 방향을 잃게 하고 굴절시키면서 나를 응시의 주체이자 동시에 보여짐의 대상[25]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머니의 환영은 내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여타의 대상에도 정확히 부착되지 않는 비현실적 경험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응시의 경험을 통해 즉각 감지하는 것은 그곳에 '어머니가 있다'는 감각이 아니라 "나는 취약하다, 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신체가 있다"[26]로 직결되는 나의 주체적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일상적 삶의 자리에 광기가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비현실성은 이들이 과거에 잊고자 했던, 어머니의 환영을 마주하는 고통만큼 등가적으로 재현된다.

25) 양선영, 「최인훈 단편소설 「웃음소리」의 서술 양상 고찰」, 『한남어문학』 제25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1, 295면 참조.

26) 조운 콥젝, 김소연 외 옮김,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도서출판b, 2015, 345면.

4. 불꽃, 자유를 향한 보편성의 부상

국가로부터 자행된 폭력은 사람들이 객관적 현실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시민들은 헬기의 소음, 갑작스레 들려오는 총소리, 단절된 공영방송 등으로부터 어렴풋이 그 배후를 추측할 뿐이다.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 판단의 방식들이 효력을 정지[27]당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게 되는 것이다. 즉 일상성이 함몰되는 시간적 경험으로부터 점차 광주가 고립된 도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혔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는 계엄군과 시민군이 서로를 적(敵)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의를 향한 각자의 전투과정을 겪는 것과도 같다. 그리하여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 공간을 직접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시민군은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28]

시민군과 계엄군이 서로를 대타항으로 의식하는 구도는 결국 양쪽 진영 모두 “우스꽝스러운 허상”(4권, 9면)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근원은 무엇이며 시민들은 어떻게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임철우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대담구조를 통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소설적으로 삽입한다. 광주 항쟁이 발생하게 된 이전의 계열적 사건들이 점근선적으로 연결되면서 광주를 결집된 형태로서 사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 결론과 합의점은 충분히 도출되었다고 봐. 민주적 헌정 질서의 수립, 계엄 철폐, 군부의 정치적 중립 요구 등으로부터 시작된 민주화 열기는 학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 사

27)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47-48면.
28)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305면.

실이잖아. 아니, 대학뿐만 아니지. 오랫동안 누적된 사회적 모순이 하층민,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주목할 만한 이슈인지도 몰라. 가령 YH사건이 그렇고 사북 탄광의 노동자 투쟁이 그 대표적인 예지. 요컨대, 이쪽의 힘이 어느 정도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더구나 이번 오월로 들어서면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야말로, 그 축적된 힘이 바야흐로 내부로부터 팽창한 끝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분출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거야.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를 메운 그 어마어마한 인파와 열기를 봐. 물론 주류를 이룬 층은 대학생이었지만, 그건 대다수 국민의 공감 내지는 동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규모야."(1권, 199-200면)

명기의 선배인 경훈에 의하면 1970년대를 거쳐 지속되어 왔던 사회적 모순이 폭발했던 YH사건(1979)과 사북항쟁(1980.4.21.-24)에서 노동자와 하층민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분노가 표출된다. 동시적으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폭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해 신군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을 주도하고자 하는 야망이 여기에 접합되면서 광주에서의 내재적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광주 민주항쟁은 신군부가 토대 세우기를 위해 자행한 사건과정에서 일어난 '환(幻)'체험의 장과도 같다. 토대란 우리의 자유를 지탱하는 사회적 실체라 할 수 있다. 존재의 윤리적 실체에 의해 재현되는 자유는 토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29] 그런데 군부독재의 국가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대표하는 자유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형태로 토대를 유지해 왔다. 이 토대를 이어받고자 열망하는 신군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29) 토대(base)란 '프레임', '영토',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용어로서 우리의 자유를 지탱하는 실체와 같다.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지닌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한 프레임이자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36-38면 참조.

의 자유를 당연하게 억압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계엄군과 시민군은 서로를 히스테리적으로 의식하는 분열증적 주체의 모습을 재현한다. 가령 윤상현은 시민군의 실패를 예감하는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환청으로 듣는다. 이는 "무서운 집단살육의 음모를 꾸민 자들의 오만한 웃음소리"이자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철없는 환상에 매달려온 자신을 비웃는 웃음소리이기도 하다. 군인들 역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거나, 아군의 오인사격이 벌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의, 자유, 민주라는 대의를 구현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군들의 맞은편에서 계엄군들 역시 국가의 명령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허깨비를 좇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내부적 힘을 분출할 수 있었던 연유는 평등한 자유를 향한 염원 때문이다. 물론 자유는 하나의 관념이자 허상으로서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외양으로 드러나며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즉 자유는 상징적 차원의 허구적 관념이지만 자유를 향한 염원으로써 표출되어 실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30] 『봄날』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윤상현은 시민들의 결기를 통해 자유의 외양이 뿜어내는 폭발력을 감지하는 인물이다. 야학에서 만난 소시민들, 소외된 하층민들을 가르치던 그는 광주가 고립되던 그날부터 투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한다. 억압적 국가 시스템이 쌓아온 그동안의 불만을 표출하듯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시민들을 격려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인다. 그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쳤던 추상적 개념들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보편성의 차원을 깨닫고 있다.

30) 레비스트로스가 '상징적 효력'이라 명명한 개념은 자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유의 외양이 가진 긴장은 실제 사회적 관계를 점차 정치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12-213면 참조.

'그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오합지졸만 같아 보이던 무장 시위대들 어디에 그렇듯 놀라운 자생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밥알을 씹으면서 윤상현은 다시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다.

민중의 힘이니, 잡초 같은 강인한 생명력이니 하는 따위의 표현을 윤상현 역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나 야학 수업 시간 같은 때에 상투어처럼 곧잘 입에 올리곤 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진정한 말뜻을 지금껏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윤상현은 새삼스레 깨닫고 있었다.(중략) 불현 듯 윤상현은 언젠가 읽었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가운데 한 구절을 기억해냈다.

'그래, 그건 사랑일 것이다. 인간이 지닌, 인간을 향한 그 고귀하고도 지순한 그리움의 불꽃—바로 그것이리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으로 가슴이 뻑뻑하게 차오름을 느끼며, 윤상현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4권, 248-249면)

'민중의 힘',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추상적 개념들은 광주의 곳곳에서 실현되는 차원에 이른다. 자유를 향한 해방은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추구하는 프락시스(praxis, 실천의 행동)로서 쟁취할 수 있다. 어수선하고 오합지졸처럼 보이던 시위대의 사람들이 계엄군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 멈추지 않고 거리로 흘러나오는 상황은 『페다고지』에서 말한 사랑의 행위와 같다. 민중의 소명인 인간화는 "불의, 착취, 억압, 억압자의 폭력"에 맞서며, 자유와 정의를 바라는 피억압자들의 열망과 그들의 투쟁에 의해 긍정될 수 있는 것이다.[31] 그동안의 억압적 군부체제가 특수한 생활세계였다면 임철우는 이를 뛰어넘는 획기적 돌파의 순간을 공동체의 연대 경험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순수하게 보편적인 차원이 광주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폭발해 나와 자각할 수 있는 것[32]이 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있다. 시민들이 마음 속 억압을 해소하

31) 파울루 프레이리, 남경태 옮김, 『페다고지』, 그린비, 2002, 51-53면 참조.

3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13-214면 참조.

고자 하는 열망을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통해 스스로 자유를 염원하고 쟁취하고자 거리로 나오는 행위를 실천하는 일은 보편성의 차원에 다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잠재되어 있던 시민들의 염원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됨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허나 『봄날』은 실제 역사를 소설로 복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미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보여준다. 사회의 그늘에서 초라하게 살아온 자들, 즉 "공원, 일용 노동자, 구두닦이, 식당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고아, 넝마주이"로 표상되는 이들은 끝까지 도청을 지키며 "불꽃처럼 확 피어올라 그들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5권, 396면) 폭발적 힘을 재현하면서 주체화의 시도를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5. 나오며

이 글은 임철우의 『봄날』에 서사적 동력으로서 주체의 환체험에 주목하여 소설의 미학적 장치가 역사의 현장과 만나는 지점을 살피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5월의 10일간 일어난 상황을 총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아들 무석, 명치, 명기로 대표되는 각계각층의 입장은 광천동 시민 아파트의 사람들, 명치가 속해 있는 공수부대원, 명기의 연극반 학우들과 들불야학의 대학생들로 재현되어 광주에서의 주체적 체험을 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상반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과 대의에 따라 주체적 지위를 보인다는 점에서 『봄날』의 대칭구도의 의의와 소설적 미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때의 대립은 발화되는 말이 파생하는 의미의 영역과 이를 전달하는 기능의 소리로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계엄군들은 말-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기계적 · 반복적 기능의 신체를 단련한

존재로서 개인의 자유의지로 현실을 판단할 수 없는 극한에 내몰린다. 지휘관의 말은 주문으로 기능하여 군인들의 정신에 책임감을 강박적으로 부여한다. 그 결과 객관적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문에 기대어 주체적 행동을 실현하는 결과를 빚게된다. 이는 광주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개인에서 시작된 소문은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에 덧대어지고 각자의 공포심이 반영되어 기정사실화된다. 그리하여 근원이나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은 광주 바깥에서 '광주'를 하나의 '흉흉한 소문'으로 인식하는 상징적 차원을 확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중의 효과를 띠게 된다.

다음으로 말이 전달되는 형식으로서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시민들의 행동 방식에 작용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외부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데 전옥주의 목소리가 폭발적인 힘을 재현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킨다. 시민들은 확성기를 통해 전달되는 여자의 말뜻보다도 격정과 애절한 호소로 전해지는 쉰 목소리의 음성에 동요한다. 이는 서사적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하는 사이렌의 노래와 같다. 의미화·상징화에 포섭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충동적 기능을 재현하게 되는 바 이는 전옥주가 군에 잡혀갔음에도 멈추지 않고 다른 이를 통해 계속하여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그 충동적 힘을 살필 수 있었다.

『봄날』에 재현된 시민들의 폭발적 힘의 분출을 임철우는 '불꽃'으로 명명하며 과거의 역사화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시민 사회를 향한 이상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군부독재 국가의 억압적 통치 체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억눌렸던 시민들은 자유를 향한 의지를 분출하기에 이르며 그 현장으로서 '광주'가 현재성을 지닌다. 인간 존재의 윤리적 실체화라 할 수 있는 자유는 이를 위한 프레임이자 공간의 의미를 지니는 토대로부터 그 실체성을 얻을 수 있다. 불꽃은 인간의 자유를 향한 의지, 인간애로 확장되며 군부독재라는 특수한 생활세계를 돌파하기 위한 보편성의

표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르렀지만 개인이 모여 공동의 의지를 이끌어내고, 실천 행동으로서 역사적 차원과 소설의 미학적 차원의 접점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봄날』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임철우, 『봄날』 1-5, 문학과지성사, 1997.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호, 「5·18과 현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6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김영삼, 「재현 너머의 5·18, '타자-되기'의 글쓰기-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김정숙, 「5·18 민중항쟁과 기억의 서사화-8·90년대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1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7.

김정한·임철우 대담, 「역사의 비극에 맞서는 문학의 소명」, 『실천문학』 통권112호, 실천문학사, 2013.

서영채, 「『봄날』에 이르는 길-임철우론」,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손미란, 「5월 18일까지의 시간과 공간, '봄날'의 정치학-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42집, 한국어문학회, 2018.

송병삼, 「4·19소설의 감각체험과 재현방식으로서의 환상」, 『인문학연구』 49권49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신수정,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황석영 한국 명단편101』 6, 문학동네, 2015.

양선영, 「최인훈 단편소설 「웃음소리」의 서술 양상 고찰」, 『한남어문학』 제25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1.

이 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1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전흥남,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기억의 방식-문순태의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 2015.

정명중, 「증오에서 분노로: 임철우의 『봄날』 읽기」, 『민주주의와 인권』 Vol 13 No.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채희윤, 「초기 광주항쟁 소설 「깃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레나타 살레클, 이성민 옮김,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b, 2003.
미란 보조비치, 이성민 옮김, 『암흑지점: 초기 근대 철학에서의 응시와 신체』, 도서출판b, 2004.
미셸 시옹, 박선주 옮김, 『영화의 목소리』, 동문선, 2005.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옮김,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1997.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까페』, 새물결, 2013.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조운 콥젝, 김소연 외 옮김,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도서출판b, 2015.
파울루 프레이리, 남경태 옮김, 『페다고지』, 그린비,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Illusory Experiences' and the Mode of Existence of the Subject in Im Cheol-woo's 'Spring Day'

Kim, Se Na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llusory experiences depicted in Cheolwoo Lim's "Spring Day" and understand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subjects are propelled. The circumstances of th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Gwangju Uprising provide not only a subject of traumatic factors but also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subjects are driven. Despite sharing the same space, individual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struggle to find the causes behind their choices and actions, resulting in an inability to clearly comprehend the situation. This manifests through illusory experiences, specifically in the form of visual hallucinations (幻視) and auditory hallucinations (幻聽), within the context of an absolute atmosphere of terror.

The narrative structure of "Spring Day" by Cheolwoo Lim transcends the binary framework of perpetrator/victim, portraying a tragic relationship that unfolds within a single family involving the military and civilian forces during the Gwangju Uprising.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realms of "speech" and "voice," which coexist in the same "Gwangju" space, we can examine the subject's perception of the world. Speech, which acts to maintain the subject's existence, serves as a meaningful object that confirms the subject's beliefs. Those individuals who can be

identified as members of the military or perpetrators are forced to justify their ac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commanding officers' speech.

In contrast, the background that propels the civilian forces lies within the realm of “voice.” The civilian forces or ordinary citizens, complet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within the confines of Gwangju's streets, can only rely on the “voice of women”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The woman's voice, rather than belonging to the realm of conveying meaning based on the content of speech, possesses the nature of “self-referential assertion” and carries its effects through its form. It gradually overwhelms the citizens through an impassioned voice transmitted as “anguished sobbing, cries, and pleas.”

In this way, behind the 10 days of Gwangju, where subjects cannot objectively perceive reality, lies the aftermath of state violence.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of Gwangju, shap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cident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new military regime, leave behind records of unprecedented illusory experiences in history. The battles undertaken by the military and civilian forces in pursuit of their respective “just causes” result in an extraordinary situation where the state directly attacks the citizens' autonomous space, and the citizens themselves find themselves at a paradoxical crossroad, compelled to rely on violence. The significance of Cheolwoo Lim's “Spring Day” lies in its exploration of the existence of subjects overwhelmed by illusory experiences and their modes of being.

Key words: fantasy experience, word, voice, gaze, cause, violence, freedom

투 고 일 : 2023년 11월 25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